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FASHION 'Khy', 'PHOEBE PHILO' 남다른 시작 런칭과 동시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주인공은?⁽¹⁾

런칭과 동시에 뜬 패션 브랜드가 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지만 'Khy', 'PHOEBE PHILO'가 그 주인공들이다. 'Khy'는 11월 1일 런칭한 브랜드로 2주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70.3만명을 확보했다. 모델 겸 사업가인 카일리 제너가 런칭한 'Khy'는 런칭한 지 한 시간 만에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가죽 트렌치코트, 장갑, 미니 드레스 소수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컬렉션은 런칭과 동시에 큰 인기를 얻었고, 15일 2차 발매를 앞두고 있다.

'엔타이어 스튜디오'와 협업한 두번째 드롭 상품은 패딩 재킷, 후드 재킷, 베스트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두번째 주목할 브랜드는 '셀린느' CD(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피비 파일로가 10월 30일 자신의 이름을 내걸어 만든 '피비 파일로 (PHOEBE PHILO)'다. '피비 파일로'는 모던, 미니멀, 페미닌한 피비 파일로의 색깔을 고스란히 담은 여성복 컬렉션을 공개했다.

피비 파일로는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사회적, 생태학적으로 문화적인 패션하우스'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피비 파일로'는 과소비, 폐기물, 공급망의 핵심 분야에 집중하며 지속적인 패션 브랜드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예상되는 수요보다 적은 양으로 생산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과잉생산을 방지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SHION 패션업계, 올 겨울엔 '푸퍼패딩'⁽²⁾ 짧고 강력한 패딩으로 겨울 스타일 완성

릴스, 숏츠 등 숏폼 콘텐츠가 인기인 요즘 패션 업계도 '숏'으로 승부한다. 이번 겨울 패션 브랜드들은 주력 아이템으로 '숏패딩'을 주목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푸퍼형 숏패딩을 선보였다. 푸퍼는 보온을 위해 솜이나 다운, 구스 등 충전재를 넣어 부풀어 오르는 가리킨다.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트렌디한 푸퍼 스타일 숏다운 '씬에어 에이스'를 선보였다. 트렌디한 디자인에 스타일리시함이 돋보이는 크롭 기장의 푸퍼 스타일로 가벼움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노스페이스'는 다채로운 색상과 세련된 크롭 디자인의 숏패딩을 출시했다. 광택 소재와 톤온톤 배색 디자인이 특징인 '여성용 노벨티 페이스 다운 재킷', 1996년 페이스 재킷을 재해석한 '여성용 페이스 재킷'이 대표적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전속모델 길다미를 내세워 숏기장 구스 후드 다운 점퍼의 다양한 스타일링을 제안했고, '리복'은 새 엠버서더인 이효리와 함께한 '이효리 펌프 패딩'을 출시했다. 올해 패딩 트렌드인 글로시 소재를 더해 크롭, 미들 다운 라인, 긴 기장의 헤비다운 라인 등으로 세분화했다. 패션 업계에서는 주말부터 날씨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겨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겨울 아우터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리복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속가능한 소재로 부상하고 있는 대마

TEXTILE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대마⁽³⁾ 캐주얼, 정장, 작업복, 패션잡화, 리빙까지 주요 소재로 부상

직물, 의류, 밧줄, 산업용 오일,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는 대마(Hemp, 산업용 목적의 대마)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섬유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섬유 부문에서 대마는 캐주얼, 정장, 작업복은 물론 시트, 수건, 신발, 커튼, 카펫 등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다. 탁월한 강도, 내구성, 항균, UV 저항성, 곰팡이, 부패에 대한 자연적인 저항성, 염료를 흡수하는 능력 등이 우수한 소재로 인정

받으면서 친환경 분야에서 특히 주목하는 소재다. 대마의 질감은 거칠고 유연함이 부족한 성질이 있으나 면, 실크, 양모 등과 혼합되어 유연성이 보완되고 있다.

텍스타일 익스체인지의 미래를 위한 대마 재배 보고서에 따르면 대마는 2021년 기준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칠레, 중국, 체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인도, 러시아 등 21개국에서 재배하고 있고 미국이 주목할

만한 섬유 대마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마 공장에서 직물이 완성되기까지는 레팅(Retning), 장식, 스커칭(Scutching), 해클링(Hackling), 카딩(Carding) 등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과 해결점이 많았지만 친환경적인 소재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앞으로 섬유 시장에서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위한 시위를 진속하고 있다

TEXTILE 방글라데시 제조업체, 의류 생산 중단 시위⁽⁴⁾ 56% 인상 비현실적... 최저 임금 3배 인상 요구

세계 최대 의류 생산 제조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2주 넘게 지속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주변의 산업 지역에서 수천 명의 의류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의 3배에 달하는 월 임금 23,000타카(한화 약 27만 5,000원)로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400만명 대다수가 월

임금 8,300타카(한화 약 9만 6,000원)로 생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간 지속된 이번 시위로 300여개 공장이 폐쇄했고, 지난 10월 28일 시위가 시작된 이후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장은 갠, 월마트, 자라, H&M, 베스트셀러, 리바이스, 맥스앤스펜서 등 서구권 대형 브랜드들의 제

조공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자 월 최저임금을 1만 2,500타카(약 14만 9,000원)으로 56.25% 인상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의류산업 지역인 가지푸르에서는 현재까지 노조 지도자들을 포함해 최소 122명이 체포된 상태다.



패션, 뷰티 소팅에서 AI 기술이 다양해지고 있다

3D DIGITAL '패션 플랫폼 빅 테크의 주인공은 'AI'⁽⁵⁾ 구글, 메타, 아마존 등 패션 및 이커머스 분야에 AI 기술 경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이 패션, 뷰티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AI 기술을 탑재해 이를 통한 수익 창출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AI 기술이 플랫폼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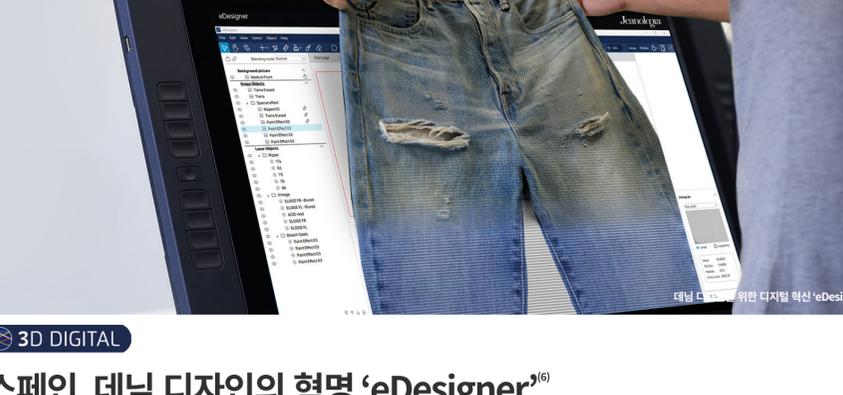
구글은 올해 구글 쇼핑 내에 증강현실 헤어 컬

러와 마이크로업 체험 확장 등 뷰티 분야에 AI 기술을 강화했다. 여기에 최근 의류 분야에도 가상 체험을 적용해 시를 사용해 다양한 의류를 착용한 실제 모델 사진을 생성한다. 구글은 가상 체험에 이어 이미지 생성, 음악 등에도 AI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마존은 기업의 핵심 서비스인 Amazon Web Services(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생성형 AI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이 아마존 AI

플랫폼과 아마존 데이를 이용해 필요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AI 모델 매장을 만들 수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레이브 메타 스마트 안경, 퀘스트3 가상현실 헤드셋에 이어 새로운 스마트 비서 Meta AI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메타는 내년엔 모든 크리에이터가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AI 서비스 '크리에이터 AI'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님 디자인을 위한 디지털 혁신 'eDesigner'

3D DIGITAL 스페인, 데님 디자인의 혁명 'eDesigner'⁽⁶⁾ 디지털 샘플 제작을 위한 강력한 소프트웨어

스페인 청바지 제조 회사 진올로지아(Jeanologia.com)가 데님 디자인에 혁신을 꾀하는 'e디자이너(eDesigner)'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했다. 1994년 스페인에서 시작한 이 회사는 고급 디지털 제조 기술을 혁신하며, 지속가능한 생산과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폐기물 제로를 보장하고 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50억개의 청바지 중 35% 이상이 진올로지아의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회사가 새롭게 개발한 'eDesigner'는 청바지의 핵심 디테일인 워싱과 레이저 디자인을 위한 소프트웨어다. 숙련된 레이저 디자이너가 아니라도 청바지의 워싱 디자인 및 표면의 레이저 디자인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레이저 디자인, 빈티지 디자인, 섀도 효과, 찢어짐, 마모 등 다양한 갤러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 실물 샘플 제작이 아닌 디지털 트윈을 사용

해 초현실적인 2D 디지털 마감을 생성하는 솔루션이다. 디지털 샘플이 완성되면 전세계 생산 센터로 전송되어 실제 동일한 디자인의 청바지를 생산할 수 있다.

진올로지아는 'eDesigner'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샘플 제작의 80%를 감소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 HYPEBEAST - Kylie Jenner's Khy Readies Second Winter-Ready Drop, 23년 11월 8일
(2) 로하뉴스 - 패션업계 2023년 겨울 맞아 다양한 푸퍼패딩 스타일 선보여, 23년 11월 13일
(3) APPAREL-RESOURCES - From fields to fabrics: Hemp leading the charge for sustainability, 23년 11월 8일
(4) 국제신문유니온 - 방글라데시 사상 최대 의류 생산 중단 시위, 23년 11월 10일 / 사진: 연합뉴스
(5) WWD - Fashion's Top Takeaways From Tech Earnings, 23년 11월 7일
(6) Textilenetwork - Transforming denim design with 'eDesigner', 23년 11월 7일